

[사회]

수능 언어영역 10문항 줄어

올해부터 시험시간도 10분 단축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의 문항 수가 10개 줄고 시험시간도 10분 단축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언어 영역 문항 수를 줄이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수정 고시안을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행정예고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수정 고시안에 따르면 60문항을 90분 동안 치르는 현행 수능 언어 영역의 문항 수를 50문항으로 줄이고 시험시간을 기존 90분에서 10분 단축한

8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듣기와 쓰기, 읽기 등 각 분야의 문항을 골고루 줄이는 만큼 내용 영역별 문항 비율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수능 1교시 언어영역 시험 문항이 많아 푸는 시간이 부족하고 첫 교시부터 수험생의 피로감이 높아지는 데다 출제자들이 양질의 문항을 출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나

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언어 영역에 대한 수험생 및 출제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제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축소한다는 내용의 수능 개선방안을 예고한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의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수정계획안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찬반 여부와 이유 등을 접수받아 검토한 뒤 최종 개선안을 다음달 중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남대 학생으로 구성된 '아시아 자연재해 휴먼스쿨 3기 팀'이 15일 전남대 1학생회관 앞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들은 '아시아는 하나'라는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아시아 각국의 자연재해 예방교육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팀. 이들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최근 태풍과 화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필리핀 비콜지역 등에서 피해 최소화화를 위한 주민교육과 봉사활동을 펼친다. /나루기자 mjna@kwangju.co.kr

갈륨비소 나노막대 제조 기술 세계 첫 개발

정보통신용 핵심 소자 개발 '탄력'

광주과학기술원 송종인 교수팀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이 차세대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정보통신용 핵심 나노소자의 응용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



화합물 반도체 나노막대 성장 기술은 세계를 변화시킬 '10대 신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히며, 나노 트랜지스터 또는 레이저 등 차세대 나노 소자 제작에 활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나노막대를 저렴하게 생산하기 위해 값이 싼 실리콘 기판 위에 나노막대를 성장시키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송 교수는 "지금까지 실리콘 기판 위에 성장된 나노막대는 그 크기(직경)가 균일하지 않아 나노소자 응용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갈륨비소 나노막대는 균일한 지름과 우수한 광학 특성이 있어 차세대 정보통신용 핵심 소자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

송 교수는 나노과학 및 나노기술 분야에서 영향력 지수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나노레터스(Nano Letters)' 최근호에 게재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차세대 나노소자 기술을 이미 체계화한 실리콘 반도체 기술과 접목시켜 저가의 실리콘 기반 나노소자를 개발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송 교수는 "지금까지 실리콘 기판 위에 성장된 나노막대는 그 크기(직경)가 균일하지 않아 나노소자 응용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며 "그러나 이번에 개발한 갈륨비소 나노막대는 균일한 지름과 우수한 광학 특성이 있어 차세대 정보통신용 핵심 소자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태중기자 hwangtae@

벌과금 못내 노역장 유치 급증

2005년 33,662명...분남·남부 연기도 2배 늘어

최근 3년간 벌과금 분남 및 남부 연기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벌과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도 급증해 생계가 어려운 계층의 상황이 나빠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벌과금 분남·남부연기 인원은 8천231명으로 전년의 3천900명에 비해 111.1% 증가했다. 2004년에도 2003년(2천729명)보다 42.9% 늘어난 바 있다.

'벌과금 과료'를 의미하는 벌과금은 '물·수 및 함께 형법이 규정된 3가지 재산형에 속하는 것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수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비롯, 모든 범죄 행위에 대해 형법도 벌금을 물릴 수 있다.

형법은 '과료'를 2천원~5만원,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03년 0.18%에서 머물렀던 분남·남부연기 허가율도 2004

년 0.24%로 증가했고 2005년에는 0.52%로 전년에 비해 2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한 벌과금을 내지 않거나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도 2003년 2만1천104명, 2004년 2만8천193명, 2005년 3만3천662명 등으로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벌과금 분남·남부 연기와 노역장 유치인원이 증가한 것은 벌과금 납부 대상자 가운데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광주지검의 경우 벌금을 미납한 수배자가 검거된 사람이 기초생활 수급권자이거나 중환자인 경우 노역장 유치를 보류하고 벌금 분남·연기를 허가하는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제'를 도입해 2004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6명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노역장 유치인원도 줄고 벌금 납부율도 높이는 효과를 봤다. /최원길기자 cki@kwangju.co.kr

속삭임처럼 내리는 겨울비
기압골의 영향으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다.

1월 16일
(음 11월 28일)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 한때 비	1~7℃
목포	흐리고 한때 비	1~6℃
여수	흐리고 한때 비	3~6℃
순천	흐리고 한때 비	1~6℃
해남	흐리고 한때 비	-1~7℃
남원	흐리고 한때 비	0~7℃
고흥	흐리고 한때 비	0~7℃
진안	흐림	-1~8℃
완주	흐림	0~6℃
정읍	흐리고 한때 비	1~6℃
진성	흐린후 맑	-1~7℃
장흥	흐린후 맑	-3~7℃
영광	흐린후 맑	-1~6℃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목포 밀물 < 12:17 썰물 < 04:43
23:48 18:06

여수 밀물 < 07:31 썰물 < 00:36
19:21 13:45

▲해돋이 07:40 ▲해질 17:44 ▲달출 05:06 ▲달짐 14:32

◇주간날씨 기상내선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7(수)	18(목)	19(금)	20(토)	21(일)	22(월)
날씨						
최저/최고	0/7	-2/7	-1/8	0/6	-1/7	-2/7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

올해 1만2천명으로 확대

독거노인과 장애인 간병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 규모가 올해 1만2천 명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15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기회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사회적 일자리 사업규모를 작년 6천 명에서 올해 1만 2천 명으로 2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과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간병과 가사, 산후조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정부가 1인당 월 77만원의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은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해당 지역의 고용지원센터 등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고용지원센터(1588-1919)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학원 종합반 강사는 근로자”

대법 “단과반은 사업자”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1996년 6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수강료의 일부를 배분받고 사업소득세를 내며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단과반 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판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취업지원 관련 사업 대학 2억5천만원까지 지원

노동부는 15일 재학생이나 미취업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 관련 사업을 벌이는 대학에 대해 1년간 최고 2억5천만원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18~31일 전국 16개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 2월 중 150여 개의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3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대학당 최소 3천만원에서 최고 2억5천만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나 고용지원센터(1588-19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한국수석대리인

2-1

주택관리사

1위

광주고시학원

227-8000

071-0092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한국수석대리인 13, 14회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학원

2월 1일

합격률 1위

새롭고 행정고시학원

361-8111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990점 만점반

600점 목표반

660점 목표반

초등중학성반

동아외국어학원

082)222-0253